

주일의말씀

만나는 대로 누구든지

김상조 대건안드레아 신부
구미직업재활센터원장



예수님께서서는 하늘나라를 종종 어떤 사물에 비유하셨다. “겨자씨와 같다. 또 누룩과 같고 그물이나 밭에 묻힌 보물과 같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처럼 하늘나라를 사람에도 비유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과 같고, 밋진 종들과 썬을 하는 어떤 임금과 같고, 아침 일찍 길거리에 나가 일꾼들을 찾는 포도원주인과 같다. 혹은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 하늘나라를 어떤 장소로 소개하신 것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사물들(겨자씨, 누룩, 보물 등등)이나, 이런 저런 사람들이 ‘이러저러하게 존재해 있는 모습’ 내지는 ‘이러저러하게 살아가는 모습’ 으로 소개하신 것이다. 결국, 하늘나라는 ‘여기 또는 저기’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루카17:21) 내지는 우리의 생활 속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로써 이미 내가 있는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거나 혹은 아니거나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다. 참으로 맞는 말씀이다.

하늘나라는 어떤 임금과 같고, 혹은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고, 또는 어떤 씨 뿌리는 농부나 어떤 장사꾼, 혹은 어떤 여인과 같다. 비유에 나오는 이 주인공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다. 지금도 세상 어느 곳에서나 각자 자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또한 그 비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각자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하여 하느님을 더 잘 알기 위해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하느님을 더 사랑하게 됨으로써 자기 영혼 육신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산다면, 그 자체로써 이미 여기서부터 하늘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예복’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 예복 역시 그분의 초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하늘나라를 인격체(사람, 즉 여인, 임금, 주인 등)에 비유하셨으니, 예복이란 하느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여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것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느님께 우리도 우리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다.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모두 다 하늘나라에 불러주신 것처럼, 하느님께서서는 혹여 우리가 대죄 중에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자한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다시 말해 자기 스스로 자신을 단죄해버릴 때 하늘나라는 영영 나에게서 멀어지고 말 것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단죄하고, 더불어 이웃도 단죄한다. 그래서 하느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우리들 서로의 사이를 벌려놓는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그분이 원하시는 예복일 것이다.

생명의말씀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마태 22,9 참조)

제1독서 : 이사 25,6-10ㄱ 제2독서 : 필리 4,12-14,19-20 복음 : 마태 22,1-14.

교구 100주년 기념 주교좌 범어대성당, 착공 막바지 준비

“내 손으로 짓는 내 성당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교구 100주년을 기념하는 주교좌범어대성당이 착공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11월, 현재 설계가 끝나가고 있는 유치원을 이전하는 공사가 먼저 시작됩니다. 이후 그 자리에 성전 본 건물을 비롯한 부속 건물들의 건립을 시작하게 됩니다.

주교좌계산성당과 함께 교구의 모든 전례와 집회의 중심이 될 새 주교좌성당인 범어대성당은 연면적 2만7527㎡(8,327평) 규모로, 대성당(3754㎡, 2,100석), 소성당(1,429㎡, 500석), 다목적 공연장(1,203㎡, 420석), 전시실(309㎡), 다목적 강당(518㎡) 등으로 구성되며, 유치원(2,656㎡), 광장(1만 20㎡), 주차장(9,955㎡, 309대 수용 가능)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현재 공개된 성전 조감도(사진 참조)는 설계 초기의 개략적인 도면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현재 전체 설계와 함께 조정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교구 100주년 기념 대성당 건립담당인 장병배(베드로) 신부님은, “100년 전 초대 교구장 드망즈 주교님께서 맨주먹으로 주교좌성당을 증축하실 때 그 가난하고 어렵던 시절에 모든 교구민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힘을 모았듯이, 1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저력은 이어지고 있다”며, 건립기금 모금도 이미 목표의 삼분의 일을 넘은 것을 보면 교구민들의 열정이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장 신부님은 또한, “모든 교우들이 내 손으로 짓는 내 성당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100주년 기념 대성당 건립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성을 모아 기도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주교좌 범어대성당은 100주년을 맞은 우리의 신앙고백이자 미래를 향한 다짐을 드러내는 기념비적인 건축물이 될 것입니다. 신앙적인 가치가 내용이라면 그릇인 건축은 모든 성(聖) 미술을 아우르는 종합예술이며, 마치 성가(聖歌)가 기도의 말씀을 꾸미듯 우리의 봉헌을 아름답게 담아낼 것입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본 건물은 100년 역사에 담긴 은총의 무게와 활력을 드러내며, 넉넉하게 마련된 광장은 새로운 시대의 복음화를 위한 소통과 희망의 포럼을 지향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지체인 주님의 몸,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거룩한 몸을 드러낼 100주년 기념성전 건립에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취재: 장성녕(안드레아)

이와함이면...

박성규 엘리지오





오늘의 미사

연중 제28주일

입당성가

50 주님은 나의 목자

화답송

◎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
리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498 예수여 기리리다

영성체송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
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라.

파견성가

3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성의 향기

:: 중요하지 않은 봉사는 없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봉사란 하느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직접 하느님을 향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거나 공동체의 필요를 돌보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활동은 결국 우리가 그 지체인 예수님의 몸의 활동이며 따라서 하느님 아버지께 바치는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봉사는 단순히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체인 내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다른 지체들과 나누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의 장모를 열병에서 고쳐 주시자 그녀는 즉시 일어나 예수님께 시종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은총이든 받았다면 그것은 나 홀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 전체를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몸의 지체가 자기가 맡은 모든 일을 제각기 수행하듯이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고 필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듯이, 주님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에는 보잘 것 없는 일이란 없고, 모든 봉사가 다 중요합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일은 드러나고 어떤 사람의 일은 숨어 있지만 다 가치가 있습니다. 손이 발 없이 완전할 수 없듯이, 주님 몸의 지체들인 우리는 서로의 역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 주교

- 교구사목국 권가타라나 수녀 -

교부들의 지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주 예수님께서서는 기도를 어느 곳에서나 바쳐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구세주께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그것을 뜻하십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뜻하시는 골방은 당신의 몸을 감추어 넣는 네 벽으로 된 방이 아니고, 당신의 생각이 갇혀있고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당신 안에 있는 그 방을 말합니다. 당신이 기도를 바치는 이 방은 어디에서든지 당신과 함께 있고, 어디에 가든지 은밀한 처소가 되며, 그 안에는 하느님만이 판관으로 계십니다.

- 성 암브로시오 주교의 <카인과 아벨>에서 -

성모당 봉헌(93주년)축일 전대사 미사

일시: 10.13(목) 11:00, 성모당

모임/행사

제3회 성경암송(영어, 우리말)발표대회

문의: 교구 성서사도직, 250-3082

예비신학생 모임: 10.16(일) 14:00

1~3대리구: 남산동 신학교

4대리구: 성동성당, 죽도성당

5대리구: 5대리구청, 평화성당

파티마 세계 사도직(푸른군대) 전국행사

일시: 10.12(수) 11:00~16:00, 한티순교성지

교구장 조환길대주교님 및 사제단 공동집전

준비물: 미사도구, 묵주, 물, 도시락, 모자

전세버스운행 성모당주차장에서 10시 출발

문의: (010)2635-0534 / (010)5071-5428

교구 100주년 기념

한국가톨릭 성직자·수도자 미술전(美術展)

전시기간: 10.11(화)~16(일), 문의: (010)3588-5252

장소: 대백프라자 갤러리 전관 (대백프라자10층)

주최: 천주교대구교구 대구가톨릭미술가회

주관: 주노아트갤러리, 홀리아트갤러리

2011년 선택인의 날

일시: 10.16(일) 14:00, 교구청 내 꾸러실로 교육관

대상: 대구선택을 수강한 모든 분

문의: 대구선택카페(http://cafe.daum.net/daeguchoice)

대구선택 100차 기념미사도 함께 봉헌됩니다.

가톨릭문전기사사도회 월례회

일시: 10.12(수) 14:00, 가톨릭교육원

우성공원 위령미사 (423-1313)

일시: 11.2(수), 우성공원

신청: 10.23(일)까지 대봉성당 사무실

성소/피정

희망기도 피정 (80명 선착순)

일시: 매일 첫째 일요일 13:00~17:30(미사로 끝남)

장소: 달빛골 교육원(달서구 상인동 삼성교회 옆)

지도신부: 최봉도, 참가비: 1만 원

문의: (011)532-2879 / (054)336-4831

아름 기도모임 초대

일시: 매주 월요일, 19:00~21:00, 예수성심시녀회

대상: 미혼여성수구나가들(저녁식사, 간식 제공)

문의: (010)2649-2045

예수의가리마수녀회 기도에 모임

일시: 10.15(토) 18:00 매일 셋째 토요일

장소: 만촌1동 성당 수녀원

문의: (010)3402-5232(http://cafe.daum.net/vocation)

올리베따노성베네딕도수녀회 성소모임

일시: 10.16(일) 14:00, 가톨릭여성교육관

문의: (010)9510-1131

예수회 성소모임

일시: 10.15(토) 16:00, 예수회 관구본부(서울)

문의: (010)7197-7400(vocsj@daum.net)

교육/모집

10월 가나강좌 (1인당 2만 원, 당일접수)

일시: 10.16(일) 10:00~17:00

장소: 가톨릭의료원 의대 마리아관

문의: 641-5678 / (010)8853-7458

틴스타 성교육 지도자과정 워크숍

일시: 11.6(일), 11(금)~13(일)

신청: 10.26(수)까지 (공문 참고)

장소: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피정의집

대상: 청소년 성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

문의: 250-3066 / (010)3823-9007

에니어그램 2단계교육

일시: 10.14(금)~15(토), 가톨릭근로자회관

작가: 1단계 교육받은 분

문의: 가톨릭근로자회관, 253-1313

가톨릭대학교병원 호스피스봉사자교육

일시: 10.17(월)~21(금) 13:30~17:30(5일)

접수: 10.12(수)까지(65세 이하), 수강료: 2만 원

장소: 의대마리아관 1층 종합강의실

문의: (011)503-1835(대구248-13-006980)성미순

더 나은 혼인 생활을 위한 -ME주말

대구293차: 11.11(금)19:00~13(일)18:00

장소: 한티 피정의 집, 문의: 983-0521

사랑의 대화방법을 체험하게 됩니다.

제대 봉사자를 위한 전례꽃꽂이 수강생 모집

모집기간: 10.10(월)~11.20(일)까지 선착순

대상: 초급반 ~ 전문부반

문의: 전례꽃꽂이연구회, (010)2506-6259

가톨릭 요셉발간강회 강좌 <발은 제2의 심장>

일시: 매주 토요일 14:00~16:00(10회)

문의: 476-7774 (교재 및 도구포함 10만 원)

홈페이지: http://www.footfather.com

통 큰 선교로 통 큰 결실을!

제45기 선교대학

일시: 10.15(토) 10:00~16:00, 계산문화관

대상: 선교에 애정을 가진 모든 분

신청비: 1만 원(교재, 식대), 지도: 이판석 신부

문의: 한국천주교가두선교단, 781-6100

대구가톨릭대학교 TESOL 5기모집

일시: 10.14(금)~16(일), 펜실베이니아대학 제휴

경북유일180시간, 영어회화전담강사지원가능

미국유학 시 학점인정 1년 내 석사학위

무료어학연수 기회, 신부님 추천장학

문의: 526-0111(http://tesol.cu.ac.kr)

제39차 마신부님 아일랜드 영어연수

초·중·고: 2012.1.7(토)~29(일)

*아일랜드 학생들과 함께 정규수업

대·일반: 2012.1.8(일)~2.19(일)

주관: 마신부님(아일랜드골품반회)

문의: 그린피스 E&T, (02)3446-4253

2012년 겨울방학 필리핀 영어캠프

일시: 2012.1.9(월)~2.7(화), 대상: 초·중·고 남녀35명

장소: 필리핀 비단 산아거스틴학교

주관: 성아우구스티노수도회

문의: (010)9204-1262(www.osakorea.or.kr)

안내

교구법원 공시(253-9550)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헌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정점순, 장실근

미 사	일 시	장 소	미 사	일 시	장 소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0월 10일(월) 오전 11시	계산주교좌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미사	10월 10일(월) 오전 11시	신평성당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0월 10일(월) 오전 11시30분	2대리구청-범여성당	포항지역 밀알후원회 미사	10월 10일(월) 오전 11시	죽도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0월 10일(월) 오전 11시	3대리구청-월성성당	대구가톨릭학생생활가협회월례미사	10월 10일(월) 오후 7시30분	삼덕성당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10월 13일(목) 오후 2시	성모당

코리아알트만 시스템

혼인을 앞둔 교우 자녀와
엘리트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박복순(오트리아)
한국대리
한국대리

● 지하철 2호선 범여 4번 출구 ●

TEL 743-4488 FAX 744-1594

분도는 한 방울의 기름도 속이지 않습니다!

분도석유
전화 한 통화면 어느 곳이든 달려갑니다.
☎ 080-421-5151(무로전화)
424-2240, 743-1977, 957-9543

대표 김현철(베네딕도)

한 신 주 백

신축 및 주택수리
지붕칼라강판 판별공사
지붕 우레탄폼 방수
방풍창고 보온단열

053) 555-5432

박일주(마태오) 011-529-7501

3대를 전통과 신로불이를 고집하는 기업

(주)약령시사람들

“경육과 다양한 제품류”
● 노인성질환, 생장70원인, 수험생,
갱년기 여성교우님 특별 우대

웰빙건강식품, 각종 선물류

대표: 양대석(안토니오) 임영주(모니카)

☎ 428-8002, 011-528-8008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

안심내과

<30년 전통의 (구)이상에 내과>

내과 전문의 5인 진료 765-3771

심장 · 순환기, 소화기 · 내시경 전문

공단검진, 5대암검진, 각종 종합검진

이상재(바오로), 이준영 · 김영성(베드로) 외 2인

들안길 베게리 ~ 황금성당 사이

금 · 보석 · 시계전문점

미석 특허청 등록업소

대표 임중화(바실리오)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3번출구 대구역방향

☎ 423-6336, 011-809-3003

라식, 백내장수술전문

김기산안과

Dr. Kim Ki San KIM KI SAN EYE CENTER

의약박사/면담 김 기 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반월당 대구학원 9층

☎ 257-8875 www.kisanlasik.co.kr

노블코리아

결혼정보회사

결혼을 앞둔 미혼 남녀의 성혼을 전
제로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수수료
를 이숙한 사회복지사가 직접 상담
해드립니다.

성인동 홀플러스 맞은편 한상철 학원 5층

대표 박영주 점마

문의: 053) 639-8998